

# 강의계획서 (4주, 12시간)

주차	교육내용	비고
<p>site map #1</p>		<p>상인과 손익에서 시작하는 인간 대탐구 art에서 출발하여 science로 마무리</p>
<p>site map #2</p>	<p>无往不復(주역) 反者道之動(도덕경) 齊物 = 不二 이름 = Palindrome 사람 ≠ Palindrome Nash equilibrium/1994 Prospect theory/2002</p>	<p>예나 지금이나 해 &amp; 달의 예측보다 사람의 예측이 훨씬 더 어렵다</p>
<p>week 1</p>	<p>희요순우로 시작하는 중국 역사이야기 이희신(李羲臣) 이요신(李堯臣) 이순신(李舜臣) 이우신(李禹臣) 或言禹會諸侯江南，計功而崩，因葬焉，命曰會稽。會稽者，會計也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<a href="http://ctext.org">ctext.org</a> 先秦兩漢-&gt;經典文獻-&gt;周易-&gt;易經-&gt;1☰乾 ~ 64☵未濟 [384개 효(爻)] 先秦兩漢-&gt;道家-&gt;道德經(又名：老子) 1장 ~ 81장 하상(은)주의 왕조교체이야기 음양오행 : 목 화 토 금 수, 금씨가 김씨로 바뀐 사연? &amp; 후금이 청으로 바뀐 사연! 경국지색 : 말희, 달기, 포사 봉신연의(36회 &amp; 37회)에서 보는 주역의 탄생스토리 주왕(紂王) &amp; 달기(妲己) : 紂囚西伯昌姜里/주수서백창유리 vs 서백=희창=문왕 (母: 태임, 아들: 무왕 &amp; 주공) : 武王伐紂/무왕벌주</p>	<p>이순신장군의 4형제 司馬遷/史記/夏本紀 35 太史公曰 우/탕/문무주공 걸말희/주달기/유포사 酒池肉林 영화 파묘: 馬血의 기운으로 신사임당: 그 이름의 유래를 아시나요? 정몽주의 이름에도? 이성계의 새이름에도? 李成桂 → 周公-姬旦 → 李杻</p>

week  
2

1193: 无平不陂 无往不復, 18산풍고/32뇌풍향: 終則有始  
41: 損益盈虛 與時偕行,  
42: 凡益之道 與時偕行,  
47 困 有言不信, 尚口乃窮也, 48: 无喪无得,  
55: 日中則昃 月盈則食 天地盈虛 與時消息,

### 도덕경

=

f (15謙, 25无妄, 41損, 47困,  
52艮, 55豐, 60節)

5: 多言數窮, 23: 希言自然, 8: 上善若水,  
19: 絕聖棄智, 絕仁棄義, 絕巧棄利, 20: 絕學無憂,  
25 寂兮寥兮 寂兮寥兮 寂兮寥兮 寂兮寥兮 寂兮寥兮 寂兮寥兮  
56: 知者不言 言者不知,  
71: 知不知上 不知知病, 80: 小國寡民  
81: 信言不美 美言不信 / 善者不辯 辯者不善 / 知者不博 博者不知

태극기와 주역8괘 : 乾하늘 離불 坎물 坤땅

사상의학 4개(2X2) < MBTI 16개(2²X2²) < 주역 64개(2³X2³)

주역의 핵심 키워드: 손익괘구 (돌고 도는 cycle)

41損input 42益output 43夬breakdown 44姤reunion

생주이멸(生住異滅) / 브라흐마-비슈누-시바  
도덕경 40장: 反者道之動 = 되돌아가는 것이 道の 움직임

아브라함계열의 유일신 종교 (기독교, 유대교, 이슬람교)  
≠  
동양의 범신론적 종교 (힌두교, 불교, 유교, 도교)

이리역(정이천): 元亨利貞(원형이정)을 춘하추동과 같은 cycle로 본다

vs

상수역(주자): 元亨(원형)과 利貞(이정)을 구분하여  
형통함이 크지만(元亨) 곧아야 이롭다(利貞)는 점사(占辭)로 본다

주역에 Alan Turing이 없는 이유는?  
에니그마는 풀어도 주역은 못푼다?  
에니그마 <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< 주역 < 리만가설  
주역(周易)은  
비유/은유/상징/proxy로 이루어진  
mental secret code

채우고 지키는 儒教  
= active/적극의 美學

프리드리히 니체:  
자라투스트라는  
이렇게 말했다  
Alles geht,  
Alles kommt zurück

영국속담  
What goes around  
comes around

비우고 지키는 道敎  
= passive/소극의 美學

13 천화 同人 天  
14 화천 大有 天

생로병사(生老病死)

흡입 압축 폭발 배기

Product Life Cycle

도입 성장 성숙 쇠퇴  
박카스는 예외?

주역64괘의 BIG 4=손익괘구  
VS

도덕경의 BIG 4=1/25/40/48

only exception

4 山수 蒙,  
六三

勿用取女; 見金夫,  
不有躬, 无攸利.

象傳

勿用取女, 行不順也.

<p>week 3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도덕경 1장</b></p> <p>최고의 클라이맥스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맨 처음에? 왕필의 설명: &lt;道德真經註&gt; &amp; &lt;老子微旨例略&gt;을 보자! very first 12 characters : 道可道, 非常道。名可名, 非常名。 원인: 指事造形 (<u>어린이날 무지개 &amp; 귀어축제 무지개</u>) vs 결과: 大失其旨 &amp; 未盡其極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도덕경 25장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도덕경 1장에서 질러놓고 수습하기!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吾不知其名, 字之曰道, 強為之名曰大。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도덕경 48장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힘을 완전히 빼고 비우고 또 비워야 스윙이 자연스러워!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為學日益, 為道日損。損之又損, 以至於無為。無為而無不為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儒道佛에서는 공통적으로 언어의 한계를 일깨우고있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道可道, 非常道。名可名, 非常名。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역: 繫辭上 12 書不盡言, 言不盡意 書 &lt; 言 &lt; 意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불교의 깊은 뜻이 언어라고 하는 수단으로써는 도달할 수 없는 언어도단(言語道斷) / 불립문자(不立文字)</p>	<p>先秦兩漢 -&gt; 出土文獻 -&gt; 馬王堆 -&gt; 老子甲 -&gt; 老子甲道經 道可道也, 非恆道也 名可名也, 非恆名也</p> <p>非恆道 -&gt; 非常道 漢文帝 劉恆의 避諱(피휘)</p> <p>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지못해서 글자를 빌려 “도”라했으며 억지로 이름을 붙여 “크다”고 했다</p> <p>故無為乃無所不為也 무위는 곧 무소불위다 王弼, &lt;道德真經註&gt;</p> <p>주역에서 십익(+翼)이란? 단전(象傳) 상하, 상전(象傳) 상하, 계사전(繫辭傳) 상하, 문언전(文言傳), 설괘전(說卦傳), 서괘전(序卦傳), 잡괘전(雜卦傳)</p>
<p>week 4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장자 지복유 7장</b></p> <p>道不可聞, 聞而非也; 道不可見, 見而非也; 道不可言, 言而非也。 知形形之不形乎? 道不當名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회남자 도응훈 1장</b></p> <p>道不可聞, 聞而非也; 道不可見, 見而非也; 道不可言, 言而非也。 孰知形形之不形者乎? 故老子曰: 天下皆知善之為善, 斯不善也。 故「知者不言, 言者不知也。」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여씨춘추 증하기 대약 4장</b></p> <p>道也者, 視之不見, 聽之不聞, 不可為狀。 有知不見之見、不聞之聞, 無狀之狀者, 則幾於知之矣。 道也者, 至精也, 不可為形, 不可為名, 彊為之謂之太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한비자 해노 25</b></p> <p>而常者, 無攸易, 無定理, 無定理非在於常所, 是以不可道也。聖人觀其玄虛, 用其周行, 強字之曰道, 然而可論, 故曰: 「道之可道, 非常道也。」</p>	<p>노자 도덕경과 베토벤 교향곡 5번 “운명”의 공통점은? "따다다단" = 道可道, 非常道。 名可名, 非常名。 “운명”교향곡을 들으며 노자 도덕경의 의미를 곱씹어보자 !!! 1장=제1악장, 25장=제3악장, 48장=제4악장</p> <p>지독한 두괄식 story Aller Anfang ist schwer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굳이 갖다 붙이자면 “큰거 한방” 이라고나할까?</p>